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주간 - 광주 경영계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최수용 팀장 ▶ e-mail: gjef3425@naver.com

광주은행

◆ '고병일 은행장, 독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독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함께한 임직원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오월영령의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자”고 강조하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5·18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민과 상생하고, 어려운 지역경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무더위쉼터 쏠영업점 운영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지역의 127개 쏠영업점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서 운영하여 노년층 및 폭염취약

계층 등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잠시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개방하는 광주은행 무더위쉼터가 지역민과 고객님께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성년의 날 선물 광주신세계에서 준비하세요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가 오는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향수와 주얼리를 선보인다.

향기로운 선물에 기분 좋은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광주신세계 등 전국 조 말론 런던 부티크에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간 코롱 100ml, 코롱 인텐스 50ml 혹은

100ml, 로즈 컬렉션 제품 구매 시 장미 한송이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김은석 잡화팀장은 “가족이나 연인이 성년이 되는 특별한 순간을 기념해주려는 고객들을 위해 향수와 주얼리 등 여러 품목을 준비했다”며 “광주신세계가 추천하는 선물로 평생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 레버쿠젠 우승 기념 SNS 이벤트 실시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독일 바이어 04 레버쿠젠’ 구단의 조기 우승을 기념해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19년부터 구단과 오피셜 프리미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레버쿠젠의 리그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축하 이벤트를 진행

한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CGV 영화관람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호타이어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및 참여 가능하다.

금호타이어

◆ 어린이·청소년 기후환경교육 '그린 캠페이너'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청소년 대상 기후환경교육인 '그린 캠페이너' 활동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 1천200명을 대상으로 한 그린 캠페이너는 기후위기에 대해 알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디에이치글로벌

◆ 중기융합 광주·전남연합회 발전기금 기탁



(사)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회장인 (주)디에이치글로벌 이정권 회장이 협회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은 지난 13일 열린 중기융합 광주전남연합회장배 골프대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탁금은 회원들을 대표해 임기택 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전달받았다.

(주)디에이치글로벌 이정권 회장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500여 회원사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연합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남대학교병원

◆ 광주·전남 최초 복강경 간 기증 수술 성공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에 성공했다.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은 복잡한 과정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고난도 수술로, 국내외에서도 소수 병원에서만 시행된다. 복강경 간 이식 수술을 집도한 김효신 교수는 “일반적으로 해부학적 변이가 없고 복잡하지 않는 기증자

인 경우 복강경 간 절제술을 시행하지만 이번 환자처럼 복잡한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환자의 복강경 기증자 간 절제술을 시행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로봇을 이용한 최신 의료 기술을 활용해 기증자 간 절제술을 진행,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DN

◆ 2024 품질경영공청회 개최...품질경영개선으로 이어져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14일 나주 혁신도시 본사 3층 다목적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4년도 품질경영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한전KDN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 지속적인 품질경영개선으로 2023년 개최된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국제품

질분임조대회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 고도화로 품질경쟁력 확보와 동반상생을 위해 협력기업의 품질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품질경영 혁신을 통해 국가 에너지산업 안정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Top-Tier 에너지ICT 공기업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DN

◆ 나주교육지원청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진로 투어 운영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최근 나주 본사 홍보관 및 교육관에서 나주교육지원청과 협업 프로그램인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진로투어'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KDN을 포함한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나주교육지원청의 협력사업인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진로투어'는 교육부가 학생의 진로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 '꿈길'에 등록된 공공기관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체험처 제공은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비하는 사내 전문가의 AI 특강 등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 기부 우수기관의 위상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 (사)인재육성아카데미와 일경험 프로그램 시행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 회)는 지난 9일 (사)인재육성아카데미와 함께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사)인재육성아카데미가 운영하는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참여자 특성에 맞는 직업 세계 및 산업 현장체험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오광호 (주)해양에너지 ESG경영본부장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기회는 온다. 그 기회를 꼭 잡기 위해 지금 꾸준히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격려했다.

<제1649회 금요조찬 포럼>

드론의 현재와 미래

(소영민 前사령관)



1649회 금요조찬포럼은 소영민 前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령관을 초청하여 「드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드론이 미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이야기하였다.

1990년대에 걸프전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전략 표적에 일제히 날아가서 정확하게 정밀 타격하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그로부터 30년 지난 2020년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마니아 지역에서 드론 전쟁이 최초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생합니다. 세계 군사력 22위인 우크라이나는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에 금방 함락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는 드론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과거에는 포사격을 위해서는 사격통제소에서 25~30분 정도 평가하고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데 우-러 전쟁을 보면 드론이 GIS시스템을 통해서 사격 표적의 제원을 가장 가까운 포병부대에 임무를 전달하고 사격과 드론 공격까지 진행되는데 3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반 약세에도 불구하고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최근 전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무인기가 전쟁에서 가장 주목하는 무기 체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전문가들은 현대전을 드론과 네트워크 전쟁이라고 표현 합니다. 정찰, 표적 구축, 포격 등 드론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무기 수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우주 분야의 군사력은 2015년 7위에서 현재 8위로 떨어졌습니다. 전쟁에서 무인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터키의 경우 군사력은 11위 무기수출은 36위에서 군사력 8위 무기수출 12위로 올라섭니다. 터키가 군사력이 오른 이유는 바이락타르라는 무인드론 공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대형 무인기 시장의 경우 2018년부터 터키가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인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1977년부터 연구하여 1998년에 송골매라는 이름으로 군대에 배치됐습니다. 당시 터키가 한국에 기술협력을 해달라고 찾아왔을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드론 군사 기술이 터키, 미국, 중국 등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군대도 드론 전략사령부를 만들고, 제가 사단장으로 2018년부임 하고 광주에 드론 전투체계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구축한 드론온빛누리센터가 민·관·군·경 통합 방위 작전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광주경총 CEO분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군과 드론이 바뀌나갈 미래에 대해 고민하시고 광주의 드론센터를 통해 많은 기회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경제동향

◆ 경총,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5.9)

- 5.9(목)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
 - ESG 경영위원회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 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의 ESG 협의체

- 이날 회의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
 -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EU와 미국 등을 중심으로 ESG 관련 무역장벽*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

- * 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철강 등 6개 역외생산 품목의 탄소 배출량에 관세 부과
- ②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ESG 관련 위험 및 기회 등 사업 영향 공시
- ③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자사·공급망 인권·환경 위험 실사 및 결과 공개
- ④ 美 SEC 기후공시규칙 기후위험·전환활동·거버넌스·Scope1·2 배출량·재무적 영향 등 공시
- ⑤ 美 「청정경쟁법(안)」(CCA) 에너지집약 12개 역외생산 품목의 탄소 배출량에 관세 부과

- 손경식 경총 회장(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를 기반으로 한 무역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
 - 손 회장은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

- 이날 참석한 경영위원들은 ESG 통상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각국과의 정부 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요청
 -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제시

- 이외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인력 채용 인센티브 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연장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기준 마련 등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건의

○ 한편, 최근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과 관련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 GDP의 43%를 차지하는 미·중 양국이 Scope 3 배출량을 공시 요구사항에서 제외하거나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예로 들며,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공급망 내 중소·영세기업 역량이 크게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평가

○ 이에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국내 주요기업의 ESG 통상규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힘.

◆ 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 안내

○ 노사발전재단은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정부지원) 컨설팅 제공 사업 실시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 (지원내용)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제공

- (신청기간) (3차) 5. 27.(월) ~ 6. 7.(금) / (4차) 6. 20.(목) ~ 7. 5.(금)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www.nosa.or.kr/portal/nosa/majorBiz/reEmpymnSport/entrprsCns>

◆ 한국은행, 「2024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5.14)

○ 2024년 4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4.1% 상승(전년동월대비 6.2% 상승)

※ 최근 수출물가 상승률 추이(% , 전월대비) : △1.0('23.12) → 3.1('24.1) → 1.6(2) → 0.3(3) → 4.1(4)

* 원/달러 평균환율(원) : 1,330.70('24.3월) → 1,367.83('24.4월) [전월대비 2.8% 상승]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2.5% 하락(전년동월대비 6.8% 하락)

- (공산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4.1% 상승(전년동월대비 6.3% 상승)

○ 2024년 4월 수입물가는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3.9% 상승(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두바이유(월평균, 달러/bbl) : 84.18('24.3월) → 89.17('24.4월) [전월대비 5.9% 상승]

※ 수입물가의 전월대비 상승 폭(3.9%)은 2023년 8월(4.1%) 이후 8개월만에 최대치.

▶ 최근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 전월대비) : △1.6('23.12) → 2.5('24.1) → 1.0(2) → 0.5(3) → 3.9(4)

- (원재료)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5% 상승(전년동월대비 3.6% 상승)

- (중간재) 제1차 금속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3.7% 상승(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자본재 및 소비재) 자본재는 전월대비 1.9% 상승했고, 소비재도 전월대비 1.9% 상승(자본재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소비재 2.8% 상승)

◆ 기획재정부,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 발표 (5.9)

○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가 반도체 호조, 설비투자 회복 등을 바탕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2024년 2.5%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다만, 앞으로 수년 동안은 생산성 둔화 등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의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

○ 또한 무디스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美中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지위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한국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평가.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중소기업-대기업간, 제조업-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

※ Moody's가 제시한 향후 신용등급 조정요인

(상향요인)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실질적·장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하향요인) 군사적 충돌, 북한정권 붕괴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등에 따른 경제의 지속적 악화, 고령화 관련 지출압력을 적절히 완화하지 못한 경우의 재정 악화

◆ 국제금융센터,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 발표 (5.13)

- 국제금융센터는 5월 13일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 주요 내용 >

- (이슈) '23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가 31년만에 적자(△181억달러)로 전환된 가운데 '24년에도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기록
- (배경) 중국의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제3국 우회생산과 자국 내 자체조달도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 의존도는 주요 원자재 및 IT 부품 등을 중심으로 상승
 - (경기둔화) 중국경제가 '16년 이후 중속성장 기조로 전환. 특히 '22년부터는 코로나 봉쇄정책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중국의 수입이 2년 연속 둔화('21년 22%→'22년 1%→'23년 △6%)
 - (생산기지 이전) 중국이 생산요소 가격 상승, 미국 규제회피 등을 위해 아세안 직접투자를 늘리는 등 해외생산을 확대하면서 중국내 단순 임가공 무역비중이 급감('15년 27%→'23년15%)
 - (중국 자체조달 증가) 중국의 기술력이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한 가운데 애국소비 열풍도 가세하면서 수입품의 자국산 대체 움직임이 활발
 - (대중 수입의존도 확대) 우리나라의 對중국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수입품목이 30%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수산화리튬 등 친환경, 첨단소재 관련 수입도 급증하는 추세

- **(전망)**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가 중국의 재고 축소와 제조업 회복 등으로 일시 개선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체조달 증가 등 상기 요인에 더하여 미국의 대중국 견제도 가세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길 기대하기 어려움.
- **(재고 해소)** 중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누적되었던 재고가 소모되고 금년 IT 제품 수요도 9%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견인할 소지
- **(미중 기술갈등)**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및 흑자가 크게 줄어들 우려(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0%, 무역흑자의 460%를 차지)

- **(시사점)** 한중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어 AI 반도체 등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G2 사이 실익확보 전략이 요구.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

2. 노사동향

◆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한 노동정책 방향 제시

- 대통령은 5. 1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임금체불 등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제시
 - ※ 토론회 주요 참석자 : 대통령,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및 근로감독관, 대리기사, 배달 종사자 등 산업현장 종사자 70여명 참석
 - 대통령은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발의,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 보호와 관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주요 내용 :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의 질병, 상해, 실업 시 경제적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치, ② 노동약자를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고용부는 6.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출범시킬 예정
 - 또한, 대통령은 임기 내에 노동 관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마무리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총 27명 중 5. 13로 임기가 만료되는 25명(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8명, 공익위원 8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 1명)을 신규 위촉
 - ※ 최저임금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임기(보궐위원 제외, 3년) : 2024. 5. 14 ~ 2027. 5. 13
 - ※ 최저임금위원회 보궐위원 임기(1년) : 2024. 5. 14 ~ 2025. 6. 13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됨에 따라 잔여 임기에 대한 보궐위원 신규 위촉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구성 현황
사용자위원(총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류기정(경총 전무), 이명로(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근로자위원(총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영미(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보궐) 등
공익위원(총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등 <p>※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1명 포함(당연직)</p>

○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5. 21 제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최저임금 논의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의 공익위원 위촉 결과에 반발

※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

- 노동계는 일부 공익위원이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구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력 등을 놓고 반(反)노동 성향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공익위원 위촉 철회 요구

○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 16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 관련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공익위원들을 위촉한 것이므로, 노동계의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

